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한국계 호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오성희
인제대학교

박기환*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계 호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 결정 단계와 이민 적응 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사회문화적 변인들과 이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 거주하는 이민 1세대 242명을 표집하였고,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문화적 변인, 이민의 동기, 현실에서 이민에 대한 기대의 부응도를 측정하였으며, 심리적 적응 지표로서는 우울(한국판 CES-D), 불안(STAI-T), 삶의 만족도(SWLS) 수준을 측정하였다. 여러 예측 변인들을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과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로 분류하였고, 이민 결정 단계 요인에는 성별, 연령, 학력, 한국 삶 만족도, 이민에 대한 기대, 이민 동기가 포함되었으며, 이민 적응 단계 요인에는 거주기간, 언어사용수준, 가족의 월수입, 현실의 기대 부응도가 포함되었다.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 중, 학력이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이민의 동기에서는 '회피 동기'가 불안 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 중에서는 언어사용 수준, 가족의 월수입이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민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맞추어졌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불안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기대와 현실 일치 정도를 네 가지 요인('사회적 요인, 관계적 요인, 삶의질·교육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관계 요인, 삶의질·교육 요인이었고, 불안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는 관계 요인이 유의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심리적 건강과 상관이 있는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이민자, 이민 동기, 현실의 기대부응도,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최근 들어,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문화,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사회에서 충족하지 못한 내적인 욕구를 환경을 바꿈으로써 충족하고

자 하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수 있으며, 실제 이민 후에 이들이 원했던 삶이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변화의 영향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문제이다.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박기환,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2164-4924, E-mail : psyclinic@catholic.ac.kr

이민을 통해 기존의 사회에서 불만족스러웠던 환경을 바꿀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민자들이 처하게 되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문화적 차이, 즉 가치관 혼란,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고(Kim, Hurh, & Kim, 1993), 또한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음으로써 소외,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민자들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Berry, Kim, Minde, & Mok, 1987). 특히 한국 이민자들의 경우는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생활 패턴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더욱 클 수 있고, 외국어 능력과 같은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 이민 전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Min, Moon, & Lubben, 2005; Han, 1999). 또한 한국 이민자들은 우울 등의 심리적 장애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기분' 정도로만 보는 경향이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개인적 치료 동기도 낮은 편으로, 심리적 장애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Pang, 1994; Shin, 2002).

이러한 면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학, 심리학,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고 외국의 다민족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중의 하나는, 이민의 주체(이민자가 누구인가, 난민, 강제 이주민 등), 이민의 유형(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이민의 시기 등의 여러 변인들에 따라서 연구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해석 가능성도 다양하다는 점이다(Friis, Yngve, & Persson, 1998). 따라서 외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한국 이민자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고, 또한 한국 이민자 내에서도 이민의 세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단일한 동질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

190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이민 초기에는 국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인 미국으로의 이민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90년대 이

후 최근의 이민은 '자녀교육'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민 지역도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이자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진 나라들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김병석, 2000; 설병수, 2001; 최은수, 1996).

본 연구에서는 후기 이민 세대에 속하는 한국이민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연구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한국인 이민이 거의 197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후기 이민자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호주 이민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 이민이므로 이민을 선택하고 결정할 당시의 요인들, 즉 '이민 동기'나 '이민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이민 후에 어떻게 경험되었는가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호주 이민자들의 특성 및 이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민 추세와 이민자들의 적응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개관한 연구로서 Berry 등(198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새로운 문화로 들어갈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로 정의하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부정적 정신 건강 상태(혼란, 우울, 불안), 소외감, 정신생리적 증상, 정체감 혼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Berry, 1997; Berry et al., 1987).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을 밝혔고, 문화적응의 단계별로 '문화적응 이전의 매개 요인들'과 '문화적응 동안의 매개 요인들'로 분류하였다.

문화적응이전의 매개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교육수준, 이전의 문화접촉 경험, 사회적 지위, 이민 동기, 기대, 이민 전 국가와 이민 후 국가 간의 문화적 거리, 개인의 성격 등을 들 수 있고, 문화 적응 동안의 매개 요인들로는 거주기간, 문화적응 책략, 대처, 사회적 지지, 편견이나 차별과 같은 사회의 태도 등이 포함되었다. Berry(1997)가 언급한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매개 요인들을 인구통계학적 변인, 개인의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나누어 선행 연구들을 개관한 후, 이민의 동기에 대한 연구들, 이민의 기대와 현실 간의 일치 여부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

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성별의 차이는 비교적 일관되게 검증되어 왔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적 적응이 어렵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Beiser & Hou, 2006; Berry, 1997; Berry et al., 1987; Zlobina, Basabe, Paez, & Furnham, 2006). 이와 관련하여 Zlobina 등(2006)은 성차에 대해 분석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문화에서 기대되는 성적 역할과 새로운 문화에서 부과되는 새로운 성적 역할이 충돌을 일으키고 이러한 차이의 영향이 여성에게 클 경우에 한해서 적응의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각 이민자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대우에 따라서 성차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령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Berry(1997)가 문화적응 경험이 삶의 늦은 시기에 일어나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일생에 걸쳐서 성립된 문화가 새로운 환경에서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민 후의 거주기간에 따라 적응도 달라지는데, 단기간 동안에는 때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일정 시간 후에 긍정적인 적응을 나타냈다(Berry, 1997; Zlobina et al., 2006). Berry(1997)는 시간에 따른 적응 수준을 U-curve의 용어로 기술하였는데, 초기에는 약간의 문제만을 보이며 비교적 잘 적응하지만 점차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면서 적응 수준이 떨어지며 후기에는 문제에 적응하면서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한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심리적 고통에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던 한편(Min et al., 2005), 한국인 남성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기 위기 상태(1~2년)에 정신건강이 가장 취약하고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적 안녕감도 호전되면서 안정되어 감을 보였다(Hurh & Kim, 1990a).

둘째, 사회문화적 변인들, 즉 언어사용수준,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사회적 지지 등은 각 개인이 이민 후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의 적응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회문화적 변인들은 적응 수준과는 정적인 상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와는 부정

인 상관을 보였다(Beiser & Hou, 2006; Berry, 1997; Berry et al., 1987; Vedder & Virta, 2005; Zlobina, et al., 2006). 한국 이민자의 경우에는 특히 남성들에게 직업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직업 상태가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김병석, 2000; Han, 1999; Hurh & Kim, 1990a).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서구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한국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교민 집단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김병석, 2000; 김삼오, 2002; 최은수, 1996). 한국인 고령 이민자 집단과 비히스패닉계 고령 이민자 집단의 적응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히스패닉계 이민자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고통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한국인 이민자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고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Min et al., 2005).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1987; Kim, Han, Shim, Kim, & Lee, 2005). Berry 등(1987)의 연구에서는, 후원을 받은 이민자들, 기독교인들, 한국인 친구가 있는 한국 이민자들은 스트레스를 덜 경험했고, Jon(1997)이나 Kim 등(200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불안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는 일반적인 동기 이론과 이민 동기에 대한 연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lliot(1996)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접근(approach) 동기'와 '회피(avoidance) 동기'로 분류하였다(Elliot, Sheldon, & Church, 1997; Elliot, 1996) 접근 동기는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로 이동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회피 동기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원하지 않는 목표 상태로부터 회피하거나 이를 억제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Elliot et al., 1997; Elliot, 2006). 접근 동기 및 회피 동기와 심리적 적응 지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접근 동기는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회피 동기는 주관적 안녕감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접근 목표의 결핍과 우울 간에, 회피 동기 증가와 불안 간에 상관이 있었다

(Dickson & Macleod, 2004a, 2004b; Elliot, Chirkov, Kim, & Sheldon, 2001; Elliot et al., 1997).

Chirkov, Vansteenkiste, Tao와 Lynch(2007)는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에 대해 개념화하면서 이를 이민의 동기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는데, 유학의 동기를 불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하는 ‘보호(preservation) 동기’와 좋은 교육과 더 나은 직업의 기회를 추구하는 목표를 반영하는 ‘자기개발(self-development) 동기’로 나누었고, 보호 동기는 학생들의 안녕감의 여러 면들과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Tarkakovsky와 Schwartz(2001)는 이민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동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는데, ‘보호(preservation)’, ‘자기개발(self-development)’, ‘물질(materialism)’ 동기가 그것이다. 보호 동기는 자기와 가족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각된 위협에 직면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을 택하는 것이다. 자기개발 동기는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얻으며 새로운 기술을 숙달시키기 위한 동기이며, 물질 동기는 재정적인 안정, 부, 물질적 자원을 얻기 위해 이민을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동기와 이민자들의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호 동기는 낮은 주관적 안녕, 낮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었고, 자기개발 동기는 일반적 정신건강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민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이민 초기에 이민 생활에 대한 기대 정도는 실제 삶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실제 현실이 기대에 비해 어떠한가에 따라 삶에서의 만족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일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일치하는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지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의 연구로서, Murphy와 Mahalingam(2006)은 미국 내의 캐리비안 이민자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대와 결과의 지각된 일치 수준과 이민자들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측정하였다. 지각된 일치하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 우울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위 연구에서 기대와 결과의 일치 영역을 사회적 영역과 직업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두 영역 모두에서 지각된 일치하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

었고, 직업적 영역에서의 지각된 일치하는 우울 증상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한편 베트남계 미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전의 기대와 이민 후의 정신건강 증상을 측정 한 연구(McKelvey & Webb, 1996)에서는 베트남 혼혈 이민자들의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이민 전 기대를 ‘자기’, ‘미국인 아버지’, ‘베트남 이민 사회로부터의 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베트남 이민 사회로부터 높은 지지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을 보였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은 이민 후의 심리적 적응을 취약하게 할 수 있는데, 팽창된 기대는 강한 실망을 가져오고 우울과 성공적이지 못한 적응 등을 가져온다(McKelvey & Webb, 1996).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민을 간 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의 결정 단계와 이민 후 적응 단계에서 이민자들이 보이는 태도(이민 동기나 현실의 기대 부응 정도) 및 이민자들의 인구통계학적/사회문화적 차이가 이들의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과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로 분류하였고,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로는 성별, 이민 당시의 연령, 학력, 한국 삶 만족도, 이민 후 삶에 대한 기대, 이민 동기를 측정하였고,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로는 거주기간, 의사소통 정도, 가족의 월수입, 현실의 기대 부응도를 측정하였다.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으로서는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앞서 언급한 예측 변인들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민의 동기에서는 동기이론에 따라 ‘접근 동기’, ‘회피 동기’로 나누어 접근 동기가 높을수록 양호한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고 회피 동기가 높을수록 저하된 심리적 건강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실의 기대 부응도에서는 현실이 기대한 것과 일치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좋다고 지각하고 있을수록 심리적 건강도 양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보낸 후 호주로 이민을 간 이민 1세대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호주의 시드니와 멜

버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34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48부가 수거되었으며, 많은 문항이 누락되었거나 동일한 번호에 표시하는 등의 신뢰롭지 못하다고 판단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4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사회문화적 변인들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에 속하는 인구통계학적/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 삶 만족도, 이민 후 삶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고,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에 포함된 요인들 중에는 호주 거주기간, 의사소통 정도, 가족의 월수입이 측정되었다.

이민 전의 한국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민 후 삶에 대한 기대도 1점(‘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부터 5점(‘매우 기대가 컸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사소통 정도는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당신의 영어 사용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와 ‘현지의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의 각 질문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5점 척도로 대답하도록 하여,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민의 동기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 중 이민 동기를 측정하는 질문은 호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김병석, 2000; 설병수, 2001)과 미국이나 캐나다의 한국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Hurh & Kim, 1990a; Jon, 1997; Min et al., 2005), Tarkakovsky와 Schwartz(2001)의 이민 동기 12문항 질문지 및 Chirkov 등(2007)의 유학 동기를 묻는 15문항 질문지를 참고하여, 호주의 한국이민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처음에는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민 동기를 묻는 각 문항에 대해 1점(‘이 이유 때문은 전혀 아니다’)부터 5점(‘전적으로 이 이유 때문이다’)까지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세부 문항은 Elliot 등(2007)의 동기 이론에 입각하여, 회피 동기(6문항)와 접근 동기(6문항)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사회나 상태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하는 문항으로서 “한국의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나 개인적인 경제

적 어려움 때문에”, 이민 사회에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하는 문항으로서 “호주의 주거 생활환경 때문에(인구 밀도, 기후, 자연환경 등)” 등으로 구성하였다. 직교 회전을 사용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회피동기(5문항)와 접근동기(5문항)에 해당하는 두 개의 요인을 산출하였고, 두 문항은 어느 요인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분석에서는 배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총 10문항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피동기 5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 접근동기 5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다. 이민 동기 질문지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들과 요인부하량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현실의 기대 부응도

Murphy와 Mahalingam(2006)은 이민자들이 이민 전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다고 믿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E-OCM(Expectations-Outcomes Congruence Measure)을 구성하였다. E-OCM은 삶의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는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응답자들이 이민 전 기대와 이민 후 실제 삶 간에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기대한 것보다 훨씬 나쁘다’)부터 5점(‘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다’) 사이나 ‘해당없음’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Murphy와 Mahalingam(2006)의 연구에서 E-OCM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 중 현실의 기대 부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Murphy와 Mahalingam(2006)의 E-OCM 척도 8개 문항을 참고하고 구체적으로 영역을 세분화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항목의 예는 ‘직업적 영역 : 취업이나 사업 기회’, ‘교육 영역 : 자녀의 교육이나 나의 교육 기회’ 등이다(부록 2 참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였다.

우울 척도(한국판 CES-D)

우울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증상을 재는 척도로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에서 3점까지

의 리커트식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검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척도에서 문장 내용이 모호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는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1978)이 번안하여,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STAI-S), 특성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20문항(STAI-T) 중에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 상태보다는 지속적인 불안 상태를 측정하고자 특성 불안 척도(STAI-T)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SWLS)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SWLS)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 Diener, Emmons, Larson과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되고 타당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류연지(1996)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의 긍정적인 진술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자들은 1점에서 7점 척도 사이에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연구절차

2006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의 한인 교회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248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242부의 자료를 SPSS version 11.5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남녀비율은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남자 42.6%, 여자 56.2%), 평균 나이는 47.6세($SD=$

10.46)였으며, 이민 후 평균 거주기간은 13.05년($SD=9.25$)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51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24.0%), 대학원 졸업(11.6%) 순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A\$3,000~5,000(약 230~390만원, 67명, 27.7%)과 A\$5,000~7,000(약 390~540만원, 46명, 19%)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호주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중류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민 전 한국 삶 만족도는 평균 3.18($SD=1.03$)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이민 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는 평균 3.73($SD=0.95$)으로 '약간 기대했다(4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의 문항 평균 점수는 각각 0.70($SD=.50$), 1.99($SD=.50$), 4.25($SD=1.25$)로, 우울의 각 증상들은 일주일에 '거의 나타나지 않음'에서 '때로(1~2일)' 사이에 나타나는 수준이었고, 불안 증상은 '조금 그렇다' 수준에 해당되며, 삶의 만족도는 '보통이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

성별에서는 여성 이민자들이 남성이민자들에 비해 불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t(233)=-2.96, p<.01$. 공변분석을 실시하여 가능한 다른 혼입요인들, 즉 학력, 언어사용수준, 가족의 월수입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불안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_{(1,198)}=3.39, p>.05$. 이민 당시 연령, 한국 삶 만족도, 이민에 대한 기대는 심리적 적응 수준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학력은 우울($r=-.13, p<.05$), 불안($r=-.26, p<.001$)과 부적 상관, 삶의 만족도($r=.19, p<.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관 분석에 의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

	이민시 연령	학력	한국 삶 만족도	이민 기대
우울(CES-D)	.05	-.13*	-.09	-.05
불안(STAI-T)	.04	-.26***	-.08	.03
삶의 만족도(SWLS)	-.02	.19**	.09	-.03

* $p<.05$, ** $p<.01$, *** $p<.001$

이민 동기

이민동기에 대한 문항별 분석에서 ‘호주의 주거환경 ($M=3.80, SD=1.23$)’, ‘자녀교육($M=3.74, SD=1.42$)’, ‘삶의 질의 향상($M=3.50, SD=1.26$)’ 등의 문항이 높은 점수를 보여, 호주 이민자들의 주요 이민 동기들로 나타났고, ‘한국 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정($M=1.91, SD=1.35$)’, ‘친지나 가족과의 합류($M=1.99, SD=1.45$)’, ‘한국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대한 불안($M=2.37, SD=1.20$)’ 문항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접근요인이 3.25($SD=0.94$), 회피요인이 2.86($SD=0.96$)이었다.

이민 동기의 요인들과 심리적 적응 간의 상관

이민 동기 각 요인들과 심리적 적응 지표들 간의 관련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접근동기와 심리적 지표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회피동기와 불안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230)=.14, p<.05$. 한편 추가적으로 이민 전 한국 삶 만족도와 동기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회피동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234)=-.28, p<.001$.

표 2. 이민 동기 두 요인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

	접근동기	회피동기
우울(CES-D)	.05	.09
불안(STAI-T)	.10	.14*
삶의 만족도(SWLS)	.04	.01

* $p<.05$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

거주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 사용 수준은 우울($r=-.19, p<.01$), 불

표 3.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

	거주기간	언어사용 수준	가족의 월수입
우울(CES-D)	-.04	-.19**	-.18**
불안(STAI-T)	-.11	-.30***	-.20**
삶의 만족도(SWLS)	.12	.25***	.22**

** $p<.01$, *** $p<.001$

안($r=-.30, p<.001$)과 부적 상관, 삶의 만족도($r=.25,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의 월수입도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변인으로서 월수입이 높을수록 우울($r=-.18, p<.01$), 불안($r=-.20, p<.01$)이 낮고, 삶의 만족도($r=.22, p<.001$)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 의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현실의 기대 부응도

현실의 기대 부응도의 평균값은 3.73($SD=.50$)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이민 생활이 이민 전 기대보다 좋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12문항을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 요인(사회복지서비스,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 ‘관계적 요인(가족, 친구관계, 종교생활 요인들)’, ‘삶의 질, 교육 요인(삶의 질, 생활환경, 교육)’, ‘경제적 요인(직업적, 경제적 요인들)’ 등이다.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삶의 질·교육 요인이 평균 4.21($SD=.51$)로 높은 기대 부응 수준을 보였고, 사회적 요인 3.77($SD=.70$), 관계적 요인 3.58($SD=.68$), 경제적 요인 3.16($SD=.85$) 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의 기대 부응도 각 하위 요인들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

상관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현실의 기대 부응도 전체 및 각 하위요인들 모두에서 우울, 불안과는 부적 상관,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현실의 기대 부응도 여러 하위요인들 중 어느 요인이 이민자들의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를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관계적 요인, 삶의 질·교육 요인 두 가지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고, 불안의 경우에는 관계적 요인만이 불안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나누어 현실의 기대 부응도와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간에 유의한 요인과 상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드러지게 차이는 나는 요인은 사회적 요인(사회, 제도 서비스 등)과 삶의 질·교육 요인이었다. 사회적 요인에서 남자의 경우는 사회적 요인과 심리 적응 지표들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던 반면, 여성의 경우는 어느 심리 적응 지표도 사회적 요인

표 4. 현실의 기대 부응도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

	현실의 기대 부응도 전체	사회적요인	관계적요인	삶의질 · 교육 요인	경제 · 직업적 요인
우울 (CES-D)	-.300***	-.130*	-.360***	-.278***	-.158*
불안 (STAI-T)	-.352***	-.221**	-.369***	-.256***	-.202**
삶의 만족도 (SWLS)	.381***	.242***	.367***	.294***	.244***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에 대한 현실의 기대 부응도 요인별 단계적 회귀분석

	β	R	R^2	R^2_{ch}	F
우울	관계적 요인	-.218	.360	.130	35.569***
	삶의 질 · 교육 요인	-.148	.385	.148	20.648***
불안	관계적 요인	-.272	.369	.136	37.288***
삶의 만족도	관계적 요인	.543	.367	.135	37.222***
	삶의 질 · 교육 요인	.407	.396	.157	22.167***

*** $p < .001$

표 6. 성별에 따른, 현실의 기대 부응도 하위요인들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

		사회적요인	관계적요인	삶의질 · 교육 요인	경제적요인
남	우울 (CES-D)	-.20*	-.39***	-.16	-.15
	불안 (STAI-T)	-.29**	-.36***	-.16**	-.17**
	삶의 만족도 (SWLS)	.34**	.45***	.29	.32
여	우울 (CES-D)	-.07	-.34***	-.36***	-.14
	불안 (STAI-T)	-.15	-.38***	-.33***	-.20*
	삶의 만족도 (SWLS)	.16	.31***	.30***	.18*

* $p < .05$, ** $p < .01$, *** $p < .001$

과 유의하지 않았다. 삶의 질 · 교육 요인에서는 여성의 경우 모든 심리적응 지표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나, 남성에게는 삶의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관계적 요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심리 적응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현실의 기대 부응도 각 요인들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에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계 호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예측 요인들을 크게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과 이민 적응 단계 요인들로 나누었고, 이민 결정 단계 요인들에는 성별, 이민 당시 연령, 학력, 한국 삶 만족도, 이

민에 대한 기대, 이민 동기를 포함하였고, 이민 적응 요인들에는 거주기간, 언어사용수준, 가족의 월수입, 현실의 기대 부응도를 포함하였다. 상관 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과 심리적 적응 지표인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 결정 단계의 요인들 중, 성별, 이민 당시 연령, 한국 삶 만족도, 이민에 대한 기대는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학력은 우울, 불안과는 부적 상관,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민의 동기를 살펴보면, ‘호주의 주거환경’, ‘자녀교육’, ‘삶의 질의 향상’ 등이 한국계 호주 이민자들의 주요 이민 동기들로 나타났다. 이민동기를 기존의 동기에 대한 이론들(Dickson & Macleod, 2004a, 2004b; Elliot et al., 1997)에 따라 회피동기와 접근동기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접근동기는 심리적 적응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고, 회피동기는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회피동기가 심리적 건강의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일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Dickson & Macleod, 2004a, 2004b)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회피적 이민 동기와 이민자들의 불안 수준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이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민 전 한국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회피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즉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지각할수록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로 이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민 적응 단계에서의 예측 요인들을 살펴보면, 거주기간은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언어사용수준, 가족의 월수입은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민 결정 단계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학력과 함께 언어사용수준, 가족의 월수입은 이민자 개인의 사회문화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인들로서,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민자 개인의 사회문화적 자원 및 경제적 수준과 심리적 건강과의 정적인 관계는 대체로 일관되게 검증되어 왔다(Beiser & Hou, 2006; Berry, 1997; Berry et al., 1987; Hurh & Kim, 1990a; Zlobina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기존

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문화·경제적 자원은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지만, 특히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원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 적응 단계에서 현실이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는가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기대한 바와 비슷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좋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현실의 기대 부응도는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 현실이 기대와 일치하거나 혹은 기대한 것보다 좋다고 지각할수록 양호한 심리적 건강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Murphy와 Mahalingam (2006)의 연구에서는 기대-현실 일치 요인을 직업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요인, 즉 ‘사회적 요인(사회복지서비스,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 ‘관계적 요인(가족, 친구관계, 종교생활 요인들)’, ‘직업적 요인(직업적, 경제적 요인들)’, ‘삶의 질, 교육요인(삶의 질, 생활환경, 교육)’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네 요인들 중 삶의 질·교육 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이 요인은 이민의 동기에서도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던 요인으로, 호주 이민자들은 주거환경, 자녀교육, 삶의 질의 향상 등을 주요 동기로 하여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 후에 이러한 영역에 대한 기대가 대체로 충족되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현실의 기대 부응도 각 하위요인들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와는 현실이 기대에 부응할수록 우울, 불안은 낮게 나타나고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네 개의 요인 중,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관계적 요인과 삶의 질·교육 요인이었고, 불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관계적 요인으로 나타나 심리적 적응에 관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각 요인들이 심리적 적응 지표들과 갖는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요인에서의 기대가 현실에서 맞춰지지 않았을 때 우울, 불안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요인과 심리 적응 지표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삶의 질·교육 요인의 경우에 남성들은 삶의 질·교육 요인과 우울, 불안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삶의 질·교육 요인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관계 요인은 남녀 모두에서 심리 적응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남녀 이민자 모두에게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종교 생활을 통한 교류 등이 심리적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고, 남성 이민자들에게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치적 제도적 문제, 자유와 평등 등에서 기대의 부응 수준이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 이민자들에게는 주거 환경, 교육, 전반적인 삶의 질 등의 요인이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삶의 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것의 기저에는 어떠한 심리적 현상들이 있는지, 삶의 변화 후에는 어떠한 심리적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개괄적인 결과들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민동기에 대한 탐색은 이민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국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리학적 이유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회피, 접근 동기 이론을 이민 동기에 적용하였는데, 기존의 동기 관련 연구가 주로 학습 성취나 수행 평가와 관련지어 연구되었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기가 심리적인 지표나 적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본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이민에 대한 회피동기와 불안과의 상관이 나타났는데, 그 심리적 기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의 기대 부응도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여러 요인들, 즉 관계, 직업, 사회 등의 영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이 흥미로운 결과였다. 남녀 모두에게서 관계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문화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별로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두

는 영역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이민처럼 전반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삶에서의 주요 가치 영역에 대한 만족 정도가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남녀 간의 성차 비교는 성별에 따른 상관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 해석한 것으로서,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표본이 한인 교회에서 표집 되었다는 점에서 표본의 일반화 및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이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지지 망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정착 및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고, 호주 내 한국 이민자들의 75% 이상이 교회를 다닐 정도로 교회 생활은 이민자들의 삶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Hughes, 2003; Hurh & Kim, 1990b; Min 199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교회에서 표집된 표본이 호주 이민자 모집단에서 매우 편향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 현실의 기대 부응도를 측정할 때, 현실과 비교되는 이민 전 기대의 수준이 회고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 및 만족도에 의해서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이민 예정인 사람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추후 측정을 하는 종단적 설계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민 동기에 대한 질문지와 현실의 기대 부응도를 묻는 질문지가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 구성되었기 때문에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민 후에 실제로 이민자들의 심리적 만족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에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이민 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적응 문제나 이민과 관련한 심리적 지표들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병석 (2000). 호주 이민의 배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 NSW 거주 한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삼오 (2002). 호주이민 더 늘려야 한다. OK Times, 100, 47-51.
- 류연지 (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설병수 (2001). 해외이민의 명암 : 호주 내 한인들의 이민 동기와 실제 생활. 재외한인연구, 11, 57-98.
- 최은수 (1996). 재미 한인 이민자들의 사회부적응 실태와 정책적 대안이 갖는 통일과 교육에의 시사성, 교육사회학연구, 6(2), 93-110. 숭실대학교 교육사회학 연구원.
- Beiser, M. N., & Hou, F. (2006). Ethnic identity, resettlement stress and depressive affect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Social Science & Medicine*, 63, 137-150.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Kim U. C.,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IMR*, 21(3), 491-511.
- Chirkov, V., Vansteenkiste, M., Tao, R., & Lynch, M. (2007). The role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goals for study abroad in th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2), 199-222.
- Dickson, J. M., & MacLeod, A. K. (2004a). Anxiety, depression, and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Cognition and Emotion*, 18, 423-430.
- Dickson, J. M., & MacLeod, A. K. (2004b).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and plans : Their relationship to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3), 415-432.
- Elliot, A. J. (2006). The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30, 111-116.
- Elliot, A. J., Sheldon, K. M., & Church, M. A. (1997). Avoidance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915-927.
- Elliot, A. J., Chirkov, V. I., Kim, Y. M., & Sheldon, K. M. (2001). A cross-cultural analysis of avoidance (relative to approach) personal goals. *Psychological Science*, 12(6), 505-510.
- Friis, R., Yngve, A., & Persson, V. (1998). Review of social epidemiologic research on migrants' health : findings, methodological cautions,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26(3), 173-180.
- Han, G. S. (1999). Immigrant life and work involvement : Korean men in Australia.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 5-29.
- Hughes P. (2003, January 31). *Korean churches in Australia*. Christian Research Association : <http://www.cra.org.au/pages/00000207.cgi>에서 2007. 10. 29 인출.
- Hurh, W. M., & Kim, K. C. (1990a). Adaptation stage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male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IMR*, 24(3), 456-479.
- Hurh, W. M., & Kim, K. C. (1990b). Religious particip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1), 19-34.
- Jon, S. H. (1997). *Conseq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adult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 Kim, K. C., Hurh, W. M., & Kim, S. (1993). Generation differences in Korean immigrants' life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ical Perspectives : SP : Official Publication of the Pacific Sociological Association*, 36(3), 257-270.

- Kim, M. T., Han, H. R., Shin, H. S., Kim, K. B., & Lee, H. B.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experience of immigrant populations : A study of Kore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9*(5), 217-225.
- McKelvey, R. S., & Webb, J. A. (1996). Premigratory expectations and postmigratory mental health symptoms in Vietnamese Amerasia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2), 240-245.
- Min, J. W., Moon, A., & Lubben, J. E. (2005).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over time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and non-Hispanic white elders : Evidence from a two-wave panel study. *Aging & Mental Health, 9*(3), 210-222.
- Min, P. G. (1992). The structure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IMR, 26*(4), 1370-1394.
- Murphy, E. J., & Mahalingam, R. (2006). Perceived congruence between expectations and outcomes :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among Caribbean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1), 120-127.
- Pang, K. Y. C. (1994). Understanding depress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through their folk illness.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8*(2), 209-216.
- Shin, J. K. (2002). Help-seeking behaviors by Korean immigrants for depressio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3*(5), 461-476.
- Tarkakovsky, E., & Schwartz, S. H. (2001). Motivation for emigration, value, wellbeing, and identification among young Russian Jew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6*(2), 88-99.
- Vedder, P., & Virta, E. (2005). Language, ethnic identity and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youth in the Netherlands and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317-337.
- Zlobina, A., Basabe, N., Paez, D., & Furnham, A. (2006). Sociocultural adjustment of immigrants : Universal and group-specific predi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195-211.

Factors Affecting Immigrant's Psychological Health : A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Australia

Sunghye Oh

Inje University

Kee-Hwa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Korean immigrants' characteristic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Two hundred forty two immigran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questionnaires. 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ociocultural variables, motivation of immigration and the perception of congru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were measured as the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an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were used to measure psychological adaptation level. All predictive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pre-migratory decision stage' and 'post-migratory adaptation stage'. Variables on pre-migratory decision stage include gender, age, education, satisfaction with Korean life, expectation of immigration and motivation of immigration, and variables on post-migratory stage include duration of living in Australia, English proficiency, income and congru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Among pre-migratory decision stage variables, educ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nd anxiety, and avoidance motiv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anxiety. Among post-migratory adaptation stage variables, English proficiency and income were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nd anxiety, and level of congru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nd anxiety. Factor analyses divided congru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into relational, social, economic and quality of life factors, and relational and quality of life factors significantly predict immigrants' depression,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factors related to psychological adaptation.

Keywords: Immigrants; Motivation of immigration; Congru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Depression; Anxiety; Life satisfaction

원고접수 : 2007년 9월 13일

심사통과 : 2007년 10월 22일

부록 1.

이민동기 질문지의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들과 요인부하량 및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요인부하량			평균	표준편차
	1 (회피)	2 (접근)	3		
8. 한국의 주거생활 환경에 대한 불만	.85			2.91	1.37
9.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불합리성	.82			3.08	1.34
7. 한국의 경제 상황 및 개인의 경제 상황	.68			2.42	1.33
6. 한국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대한 불안	.57			2.37	1.20
12. 전반적 삶의 질의 향상	.55			3.50	1.26
2. 자녀교육		.71		3.74	1.42
3. 호주의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69		2.71	1.30
1. 호주의 주거생활 환경		.69		3.80	1.23
5. 호주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		.68		2.95	1.24
4.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 민주화된 사회		.67		3.01	1.28
10. 한국을 떠나야 하는 개인적 사정			.84	1.91	1.35
11. 호주에 거주하는 친지나 가족과의 합류			.67	1.99	1.45

부록 2. 현실의 기대 부응도 질문지의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들과 요인부하량 및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 항	요인부하량				문항별 평균	표준 편차
	1 사회적	2 관계적	3 삶의질, 교육	4 경제적		
10.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76				4.13	0.78
9. 자유와 평등한 기회	.73				3.78	0.89
6. 의료와 건강 서비스	.70				3.79	1.12
7. 정치적, 사회적 안정, 인종차별문제	.61				3.37	0.90
5. 친구관계와 사교생활		.75			3.08	0.99
4. 가족생활 :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68			3.73	0.87
8. 종교생활		.63			3.94	0.88
11.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79		4.56	0.59
2. 교육영역 : 자녀교육 및 나의 교육기회			.68		4.15	0.73
12. 전반적인 삶			.55		3.97	0.66
1. 직업적 영역 : 취업이나 사업의 기회				.87	3.04	1.02
3. 경제적, 재정적 상태				.74	3.27	0.90